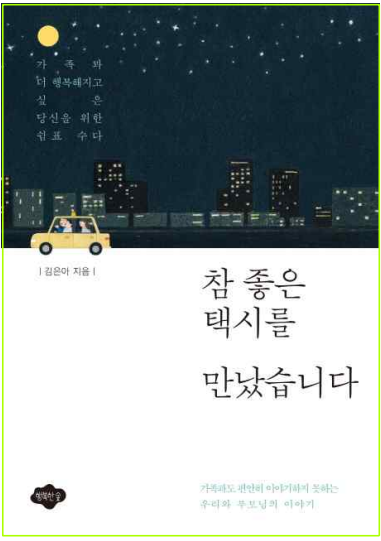


## 가버나움

“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.”라는 주인공의 말로 시작하는 영화는 실제 시리아 난민 ‘자인’의 눈빛 하나로 마음을 뒤흔든다. 학대, 가난 등 영화 속 모든 삶을 실제로 겪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스크린 속 연기가 그 아이들의 실제 삶이기 때문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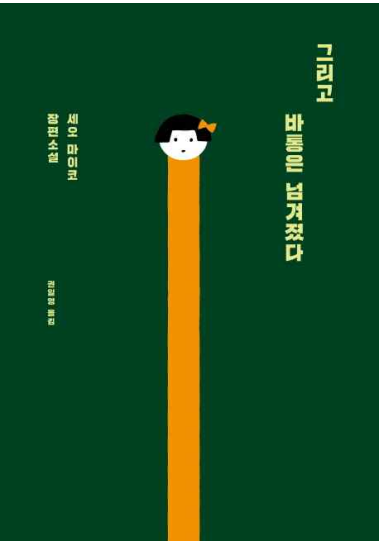
## 참 좋은 택시를 만났습니다

택시 선생님들과 나는 대화는 단순한 수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. 그것은 택시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참 좋은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만나는 데 있다. 서로 대화가 없어도, 별것 아닌 걸로 자주 싸워도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는 건 가족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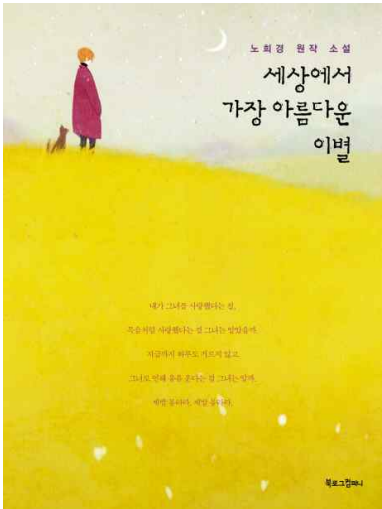
## 아들과 함께 걷는 길

아들의 어린 시절에 함께 넘었던 대관령 고갯길을 배경으로 한 성장소설. 아버지를 위로하는 아들의 진심, 그런 아들에게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넉넉한 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일러주는 아버지. 부자의 대화는 담백한 감동과 긴 여운을 남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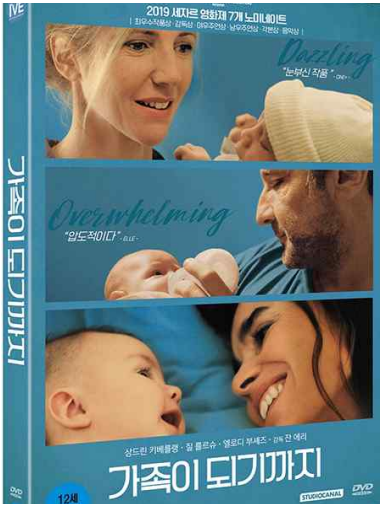
##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

피가 섞이지 않은 부모 사이를 릴레이 경주하듯 이어가며 네 번이나 이름이 바뀐 소녀의 성장 이야기. 1인 가족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마주하는 오늘날 가족이란 무엇인지,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.



##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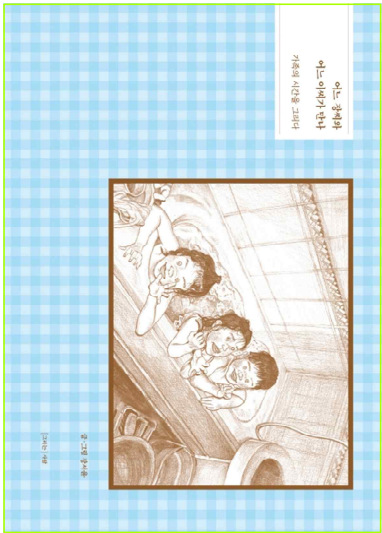
이 작품은 엄마가 차지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한다. 소설 속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,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한다. 책장을 덮는 순간, 엄마가 옆에 있어 줬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하게 한다.



## 가족이 되기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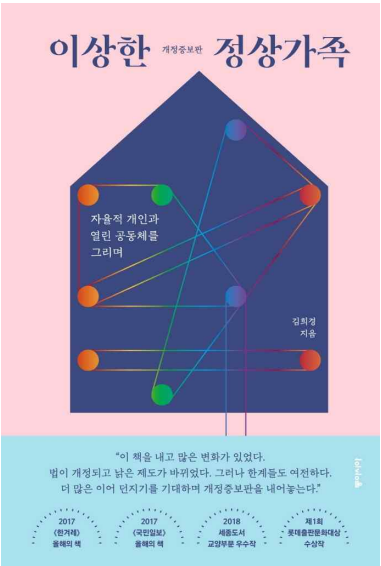
위탁가정의 역할, 한 아이를 가장 적합한 가정으로 입양 보내기 위한 프랑스의 입양 관련 기관 내에서의 다양한 갈등, 협력, 소통 등 여러 캐릭터가 나름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보게 하는 영화이다.

# 5월의 테마 : 가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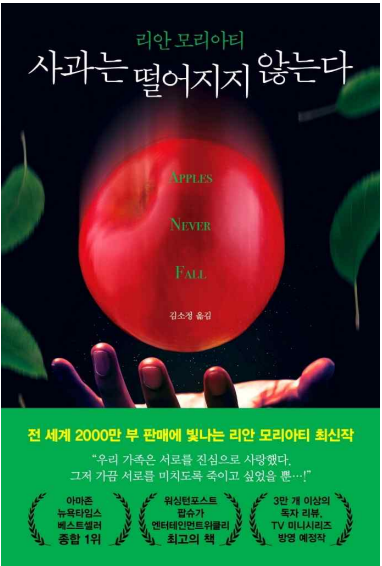
## 어느 정씨와 어느 이씨가 만나

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보는 기분으로 볼 수 있는 따뜻한 그림책이다. 작가가 그때 그 시절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상상하며 앨범 사진 속 가족의 모습을 글과 그림에 담은 이 책은 오늘의 ‘나’를 만들어 준,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게 해주는 나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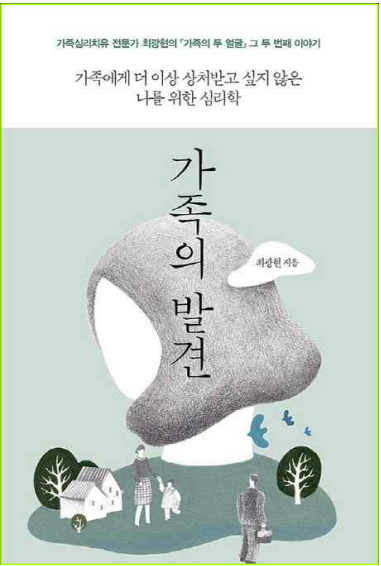
## 이상한 정상가족

이 책은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전면적으로 제시한다. 한국의 가족주의와 ‘정상가족’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, 가족 안팎의 일들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드러내고자 한다.



##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다

누구에게나 가족은 사랑이지만 미운, 그림지만 힘겨운 애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. 늘 맹렬하게 잔소리를 퍼붓지만, 아무리 끔찍한 일을 했어도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가족이 주는 위로와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기게 된다.



## 가족의 발견

저자는 수많은 내담자들의 사연을 통해 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더 외롭고 힘든지, 왜 가족에게 분노하고 상처받는지,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답해 준다.